



고객을 위한 PB 서비스 확대 하나 VIP멤버스 오픈

KEB하나은행은 지난 9월 24일 오후 남산지점에서 하나 VIP멤버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단암산업(주) 신현철 부회장을 비롯하여 KEB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박종영 전무, 서울서영업그룹 윤규선 전무, PB사업본부 이형일 본부장, 행복파트너(Branh PB)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6일,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기 위해 출발한 '행복파트너 발대식'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거액 자산가만 받을 수 있었던 PB서비스를 하나 VIP멤버스를 통해 일반 고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중 3,000만원 이상 또는 기존 장기거래 고객들은 지점에 설치된 VIP 멤버스 상담실에서 행복파트너로부터 은퇴설계, 세무, 부동산, 법률, 유언신탁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설계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원활한 상담을 위한 VIP멤버스 상담실은 남산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영업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커팅, 케이크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암산업(주) 신현철 부회장은 "행복파트너를 통한 은퇴설계, 연금플랜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산관리그룹 박종영 전무는 "새롭게 태어난 행복파트너는 KEB하나은행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고 서울서영업그룹 윤규선 전무는 "전 직원의 PB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KEB하나은행은 함영주 은행장 취임 이후 행복파트너를 새롭게 임명하여 PB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KEB하나은행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ㅎ



지난 9월 24일 KEB하나은행 남산지점에서 하나 VIP멤버스 오픈식이 개최됐다. 이번 VIP멤버스의 오픈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일정금액 수준 이상의 고객에게만 제공했던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김동욱 기자



VIP 고객 초청 행사 통합 출범기념 'KEB Hana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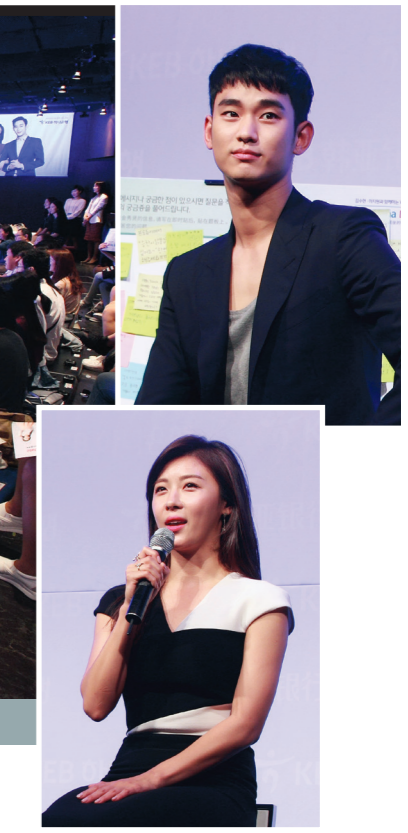
9월 10일,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KEB하나은행은 'KEB하나은행' 출범을 기념하며 한류스타이자 KEB하나은행의 전속모델인 김수현·하지원과 VIP 고객이 함께하는 KEB Hana Date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 중국 고객 200여 명이 초청됐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김수현·하지원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 고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행사장에 모인 고객들은 KEB하나은행이 마련한 케이터링을 즐기며 함께 온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포토존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으로 한·중 고객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을 즈음, 국내 최초 LED 트론 퍼포먼스 그룹 '생동감 크루'의 공연이 이어졌다. 어둠 속 LED 불빛만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고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행사장 안의 실렘과 들뜬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다.

이어 김수현·하지원 씨가 등장하자 객석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김수현·하지원의 근황 토크를 시작으로, 김수현·하지원이 준비한 선물 증정, 사진 촬영 등이 이어질 때마다 고객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져갔다. "KEB하나은행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수현·하지원 씨의 따뜻한 인사말을 끝으로 KEB하나은행이 마련한 가을밤의 특별한 이벤트는 끝이 났다.

KEB하나은행 김정기 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KEB하나은행은 국내 자산규모 1위의 메가뱅크로 다시 태어났다"며 소중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부행장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고객 한 분 한 분을 직접 배웅하며 더욱 수준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ㅎ



KEB하나은행은 9월 10일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홀 VIP 고객들을 초청해 한류스타이자 KEB하나은행 전속모델인 김수현·하지원 씨와 특별한 데이트를 즐겼다. 이 자리에는 국내 고객들은 물론 중국 고객이 함께해 행복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김동욱 기자

